

# 존재론적 장소개념에 의한 전통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 The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Space Based on the Theory of Ontological Space

**Author** 이옥재 Lee, Ok-Jae /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김문덕 Kim, Moon-Duck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Nowadays when the social and cultural paradigm is changing, the incomplete space is becoming a matter of controversy. In order to figure out the solutions to it, are being held a variety of spatial discourses for spatial essence and meaning to be cleared. Accordingly, this study has tried to seek for any probability to interpret the ontology shown at any traditional space on the ground of Heidegger's Ontological Thinking Structure which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Modern Space, whose conclusions are the followings.  
First, Heidegger's ontological space theory, which provided a foundation of Placeness concept, includes not only the character of interdisciplinary learning among philosophy, arts and any related studies but also that of mutual oriental and occidental cultures.  
Second, between the thoughts of Heidegger and Lao-tzu are considerable similarities from the methodical viewpoint that materializes the meaning of existence as an essence.  
Third, for a convenient interpretation, the ontological spatial concept of Lao-tzu's philosophy shown at traditional spaces have been categorized into Typology-Incident, Morphology-situation and Topology-meaning generation with Schultz's Existential Spatial Concept based on Heidegger's Ontology as a medium. In particular, the meaning generation which materializes the placeness has the trait of being clarified as the product of interactions between incidents and situations.

**Keywords** 하이데거, 존재론적 공간론, 노자, 도, 전통 공간, 사건, 상황, 의미생성  
Heidegger, Ontological Space, Lao-tzu, Tao, Traditional Space, Event, Meaning Genera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사회는 몸으로 감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보다는 매체를 통한 '이미지 공간'에 의한 경험체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간은 추상화, 탈 근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현대공간에 관련된 문제들은 근대적 인식체계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현시점에서 불완전한 공간이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간적 본질과 그 의미를 밝히려는 다양한 공간적 담론들에 대한 시도가 거론되고 있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존재론이라는 관점으로 사유되어 왔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론으로부터 현대의 현상학적 관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에 이르기까지 존재론은 지속적

인 영향력을 가져왔다. 특히 20세기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기계적이고 이분법적인 근대의 사유에서 벗어나 현존재로서의 인간과 사물, 환경간의 본질적인 존재와 그의 의미를 풀어낸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이후 노르베르그 슐츠(Christian Norberg-Schultz)와 에드워드 랠프(Edward Relph)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경험주체로서의 자아를 중요하게 인식, 공간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장소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사물,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주체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존재론적 입장은 현대 공간 담론에 있어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존재론적 사유방식은 인간의 존재를 자연·우주·세계와 상호 연관적 관계에서 이해하려는 동양적 사유방식과 의미적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전통공간을 존재론적 장소개념

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공간에 영향을 미친 노자사상을 바탕으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체계와의 의미적 연관성을 도출해 보고 전통공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공간패러다임을 기존의 근대적 공간관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 인간이 주체가 된 본질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존재론적 관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존재론적 사유체계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전통공간에 나타난 사유체계와의 연계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2장에서는 각종 매체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인간과 공간의 관계적 문제점을 장소상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대의 다양한 공간 담론들 가운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공간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한국 전통공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유·불·선 사상 중 하이데거와 사상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는 노자사상을 중심으로 존재론적 사유체계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존재론적 사유체계라는 형이상학적 관점을 구상적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공간 해석틀을 도출하기 위하여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공간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는 쉘츠의 실존 공간 개념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2장에서 도출된 하이데거와 노자의 존재론적 사유체계를 쉘츠의 실존 공간에 나타난 세 가지 개념을 근거로 하여 공간 해석틀로써 구체화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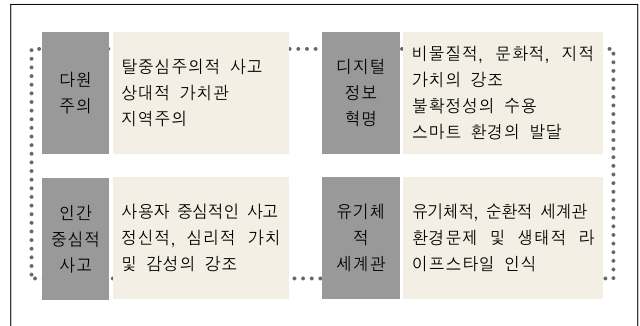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전통사상에 나타난 존재론적 장소개념이 잘 드러난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사례대상은 존재자로서의 인간, 사물, 대지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둘러싼 대지 특성이 공간 구성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서원 두 곳, 병산서원, 도산서원과 유례가 드문 도심형 원림 광한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2. 본질로서의 존재론적 사유체계

### 2.1. 대안으로서 존재론적 공간론

첨단정보화에 따른 테크놀로지는 인간과 사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으며 인간·자연·사물과 소통하는 횡수보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접속에 의한 횡수가 늘어남을 경험하고 있다. 매체를 통한 '이미지 공간'에 의한 경험체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추상화되고 이미지화된 탈공간화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공간론이 현대사회에서 대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주요한 사회·문화적 패러다임과 그 특징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sup>1)</sup>



<그림 1> 21세기 사회·문화적 패러다임과 세부항목

<그림 1>에 나타나듯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지역적 특색과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한 이분법적 사고체계에서 벗어나 다원화되고 사용자가 중시된 인간 중심적 경향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기술시대에 등장할 사이의 문화현상과 문제점을 예측하면서 이를 존재자와 존재 간에 생겨나는 '존재론적 차이'<sup>2)</sup>로서 사유해 나갔으며 사이의 의미를 실체들이 병치·중속·배제·매개함을 통하여 관계를 맺음으로 파악하였다.

현존재로서의 인간과 다른 존재자인 사물과 도구 사이의 관계는 상황적 맥락에 의하여 달라지는 상대적 성격을 띤다. 인간의 행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대적 관계 즉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며 인간의 행위적 산물은 다시 사회문화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흐름을 갖는다.

이와 같은 하이데거의 입장은 앞서 언급된 현대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흐름과 의미적 연관성을 보여 준다.

### 2.2.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체계

유토피아의 지향과 기능주의를 강조하던 근대건축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획일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세기 중반 장소성 개념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장소성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에드워드 렐프는 산업 시대 이전에 존재하였던 지방색, 다양한 장소 경관은 사라지거나 이미 소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렐프가 지적하였

1) 이정민, 현대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관된 공공디자인의 신경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3호, 통권 92호, 2012.6, p.78  
2) M. Heidegger, Die Grundprobleme der Phanomenologie(SS.1927), p.22

듯이 획일화 현상은 문화와 장소가 지역적 상황<sup>3)</sup>에 적응하면서 토착화 하는 과정의 부재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장소경험의 빈약함과 지역 간의 ‘차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밋밋한 경관(flatscape)’<sup>4)</sup>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렐프는 장소성 상실을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공간 개념을 인용·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탈근대적인 공간 사유를 위하여 하이데거는 존재 개념에 대한 규명으로부터 출발한다.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부여된 것 간의 관계로 파악되며 이 과정에서 내적·외적 원인이 작용한다. 즉 하나의 독립된 존재자(사물, 도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떻게 사용되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상황적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

하이데거가 주장한 존재론적 장소론은 형이상학과 현상학에 기초하고 있으며 존재를 현상이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하여 사유하는 장소사유방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이데거에게 있어 공간개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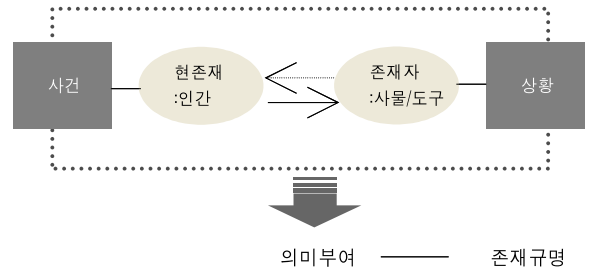
인간과 공간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담론들을 종합해 보면 ‘거주하기’는 인간에게 있어 경험세계이며 존재영역에 해당된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다른 존재자(사물, 도구)와 달리 ‘현존재(existence)’라 칭하였으며 이는 인간 자체가 존재(being)를 드러내는 장(here)이라 파악하였기 때문이다.<sup>5)</sup> 현존재는 실존이며 이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른 현존재의 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가 규명된다.

이와 같이 현존재로서 인간이 다른 존재자(사물, 도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은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로서 파악된다. 하이데거는 기계적이고 이분법적 공간이 아닌 ‘세계-내-존재’가 존재하는 공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존재자(사물, 도구)가 현존재(인간)와 만나게 되는 장에 대한 사유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존재론적 장소개념은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적 장(장소), 이용자로서의 현존재(인간), 전달내용으로서의 관계적 의미와 사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이해되어진다.

현대 공간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상학적 장소개념에

있어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공간론은 철학과 예술, 철학과 인접학문 사이의 융합 학문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으며 동서양 간의 상호 문화적 성격을 가진다.



<그림 2> 사건-상황-의미생성 관계도

### 2.3.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노자사상

하이데거는 일찍이 노자의 ‘도덕경’을 접하면서 후기에 도가(道家)에 관심을 가졌다. 하이데거와 노자의 사상에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도(道)와 ‘존재’의 의미에서, 길(weg)의 철학적 의미에서, 도와 존재의 휘지스적 성격에서, 언어에 대한 이해 등에서 그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sup>6)</sup>

하이데거의 존재 상실이라는 용어는 노자의 무위자연의 대도(大道) 상실과 그 의미가 같으며<sup>7)</sup> 하이데거가 ‘사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노자의 빔(虛) 사상이 드러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드러난 존재자에 의미를 두는 이전 서구 형이상학 전통과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노자의 ‘도덕경’ 제 11장을 살펴보면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을 만든다. 그러나 그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sup>8)</sup> 하이데거는 항아리(krug)를 예로 든다. 항아리는 다른 물건을 담는 사물이다. 비록 그릇의 사물적인 것은 물질로부터 존립하지만 결코 물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담는 빔에서다.

비어있음은 무의미한 공허가 아니라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즉 비어있음은 역동성을 가지며 존재자를 존재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sup>9)</sup>

또한 하이데거는 ‘시적으로 사유하는’ 노자의 중심적인 용어가 도(道)이며 이는 길을 뜻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노자의 시작(詩作)하는 사유에서 주도적인 말은 도(Tao)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길(weg, 道)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길을 단지 외부적으로 즉 두 장

3)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공간론에서 ‘상황’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하이데거에게 ‘상황’은 본래적인 공간을 의미하며 역사의 뿌리를 강조하는 낭만주의의 민족 공동체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4) Edward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김택현 외 2인 역, 논형, 2005 p.177  
밋밋한 경관은 의도적인 깊이가 결여되고 평범하고 평균적인 경험의 가능성만을 제공한다.

5) 이수정, 하이데거-그의 물음들을 묻다, 생각의 나무, 2010, p.101

6) 한국하이데거학회, 하이데거철학과 동양사상, 철학과 현실사, 2001, p.110

7) 한국하이데거학회, 앞의 책, p.108

8) 남만성, 노자 도덕경, 을유문화사, 서울, 1970

9) 김형효, 도가 사상의 현대적 독법, 도가철학 제2집, pp.10-11

시간의 연결 노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합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길을 오늘날의 형이상학과 기술 시대에 방법으로 곡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sup>10)</sup>

하이데거가 언급하는 길을 살펴보면, 숲에는 여러 길 이 있다. 풀에 가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에서 끝나는 길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길들을 가는 도정에서 사유의 길이 생기는 것이다. 이 도정에서 우리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경험과 존재의 경험을 사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이데거는 대지의 의미를 인간의 거주하기를 통하여 구현하였다. 예술의 본질은 탈 은폐하려는 세계와 은폐하려는 대지 사이에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며 자연 자체는 물성이 가진 무게감, 색채 등은 인간의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감각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지는 몸담고 있는 민족의 역사적 흐름을 담은 다는 점에서 강한 장소성을 띠고 있다. 대지는 ‘존재의 중심으로서의 아궁이(herd)’로 묘사되는데 아궁이는 고향적 존재의 장소들을 의미한다.

<표 1> 하이데거와 노자의 사유체계 유사점

하이데거			노자		
사유체계	개념어	내용	사유체계	개념어	내용
현존재와 존재자의 관계성 세계-내-존재 상황 사건 의미성	항아리 Krug	사물적인 것은 물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물질을 담는 비어있음	도(道) 자연 유기적세계관 순환적 회귀적 조화중시 허(虛) 내재성	그릇 虛	그릇의 빈 공간이 쓸모를 결정 그릇은 안과 밖의 구조로 이루어진 도식이며 그 일차적인 경험은 몸 몸은 하나의 그릇이나 그릇 속에 들어 있는 사물로서 경험
	길 Weg	길을 걷는 도정에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 존재의 경험을 사유		길 道	소통은 물리적 길을 통해 이루어짐 큰 길을 지향하는 것은 ‘비움의 미학’
	대지 Herd	예술의 본질은 대지의 은폐와 탈은폐 사이에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		대지 自然	상황의 내재성 사물, 인간, 자연의 관계에 따른 모호성·변화성

### 3. 존재론적 관점의 공간적 해석

#### 3.1.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공간 해석

노르베르그 슈츠는 저서 “Meaning and Place”<sup>11)</sup>, “Concept of Dwelling”<sup>12)</sup>에서 근대적인 공간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실존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슈츠가 언급한 실존 공간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공간개념을 근거로 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존재인 인간은 그 자체가 존재를 의미하는 실존이며 이

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른 현존재의 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존재가 규명됨을 전제로 삼는다.

이를 근거로 슈츠는 물리적 차원이 아닌 인간 존재의 차원, 실존적 차원에서 공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실존적 공간개념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에 필연적 수단이며 인간과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의미가 내포된 장소적 개념을 지닌 인간의 환경적 존재를 가능케 하는 전체로서의 장(場)이다.

슈츠는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적 이미지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피아제(J. Piaget)의 이론을 차용하여 도식(schema)<sup>13)</sup>을 공간적으로 해석하였다. 슈츠에 의하면 쉐마는 개별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인 기본 구조를 지니며 사회문화적으로 함의된 것이다.<sup>14)</sup>

공간은 환경적 존재로서 인간의 인지적 도식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도식 역시 기존 공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창출된다.

슈츠는 현존재로서의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밝히는 거주(dwelling:슈츠가 언급한 거주개념은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하는 현존재가 다른 존재자(사물, 도구)와 상호작용하여 실존할 수 있는 개념과 의미상통)의 본질적 개념으로 형태적 접근 Morphology, 위상학적 접근 Topology, 유형적 접근 Typology를 제시하였다.<sup>15)</sup>

<표 2> 슈츠의 실존적 공간해석

공간적 해석	건축언어	Morphology	Typology	Topology
	지시대상	어떻게 How	무엇을 What	어디에 Where
	인간기능	identification	memory	orientation
	특성	환경적 관계 대지와와의 관계 내부와 외부 사이의 관계	역사성 개인의 기억에 의해 형성된 공간적 쉐마 삶의 경험	장소 공간의 위상적 질서관계

세 접근방식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 의미를 발현하게 되는데 Morphology라는 형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적 의미로서의 Typology가 요구되며 반대로 현존재로서의 인간이 Typology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Morphology라는 감각적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상호적 작용을 통해 존재의 의미가 생성되는 Topology라는 장소적 특성을 발현시키게 된다. Topology는 공간의 질서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리스의

13) 도식(Schema): 인지적 구조를 말하며 이는 적용에 필요한 생물학적 수단의 정신적 부분이다. 쉐마는 개념 또는 범주의 하나로 유기체가 어떤 사실을 공통된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지적구조이며 반복가능한 심리적 현상이다.

14) C. N. Schul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2002, p.7

15) 강인보, Christian Norberg-Schulz의 현상학적 건축이론에 근거한 실존적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8, p.41

10) 한국하이데거학회, 앞의 책, p.116

11) C. N. Schulz, Meaning and Place, Rizzoli, New York, 1993

12) C. N. Schulz, Concept of Dwelling, Rizzoli, New York, 1994

토포스(Topos)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하이데거의 존재사유가 장소의 다의적 의미에 대한 위상학적 장소해명이라는 점에서 슬즈가 제시한 유형학적·형태적·위상학적 접근과 유사한 공간적 해석을 보인다.

### 3.2. 전통 공간에 나타난 노자사상

서양의 사유형태는 이성을 주체로 하고 언어를 매개로 하여 논리에 따라 추리하며, 명제를 세우고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리인 이법(理法)을 통하여 진리를 획득하는 사고방식으로 요약되어 진다.<sup>16)</sup>

반면 동양의 사유형태는 구상적이고 직접적인 가치에 의해 통합과 차별, 전체와 개체의 종합을 추구하는 사유 형태를 갖는다. 이는 당시의 철학적 기반인 유·불·도의 다양한 사유체계를 기반으로 일원론적이며 관념적인 철학을 공간에 투영시킨 결과로서 서양의 환원적이고 기계적인 관념과 달리 전일적이며 유기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자연에 대한 ‘인(因)의 원리’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인(因)의 원리’란 지세와 지형 등 둘러싼 물리적 환경 특성을 따르면서 이를 잘 활용하는 원리로써 건물의 위치와 외형이 주변 환경과 적절하게 융화되어 유기적 관계를 지니도록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동양에서는 절대적 가치체계보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공간적 맥락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진다. 자연의 변화와 상존을 포용하고자 하는 시간성이라는 종적인 맥락성과 인위를 하되 자연의 원형을 손상하지 않으며 인위가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순환적 측면에서의 공간적 맥락성은 공간 구성에 있어 중요한 가치체계로 작용한다. 그 결과 시·공간적 맥락성에 기반을 둔 동양의 상황적 사유체계는 변화성, 관계성, 모호성이라 특징을 야기하였다.

도가사상의 근원적 체계를 이루는 노자사상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근본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근원적 질서 체계로서의 자연을 그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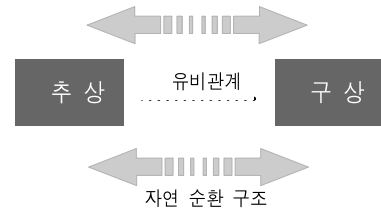
노자사상에서 근원적 질서는 실체이면서 형체가 없는 도(道)에서 발현하여 다시 도(道)로 회귀함을 말하며 여기서 무(無)와 유(有)는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계열의 하나일 뿐이다.<sup>18)</sup>

한국의 전통공간은 외부공간과의 관계성 속에 입지하며 지형적 특성 또한 산세의 형국을 근간으로 파악하고 있어 자연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노자사상의 영향이 크

게 나타났다. 전통공간에 영향을 미친 노자사상의 사유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자연 유비적 순환도식으로 ‘복귀개념’을 의미한다. 앞서 노자는 근본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면서 순환적 도식을 원의 형태가 아닌 리듬의 형상으로 파악하였다.

직선상에서 변화를 수반하는 리듬의 방식을 순환도식의 형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때 비가시적 시간은 가시적 공간과 유비적<sup>19)</sup> 관계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3> 노자사상의 가치론적 입장

둘째, 은유체계로서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고자 하였는데 노자는 존재로서의 몸을 사유함에 있어 시공간을 인식하는 몸이 일차적 공간-시간이며, 몸을 둘러싼 시공간은 몸의 방향, 즉 시선의 방향에 따라 가치를 수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였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길, 그릇, 대지개념에 대한 은유도식은 노자사상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내용은 <표 1>에서 요약하도록 한다.

### 3.3. 존재론적 공간 해석 체계

노자사상은 자연 유비적 순환론과 길, 그릇, 대지에 대한 은유 체계적 이해를 전제로 전통공간에 있어 건축물로서의 사물과 자연,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노자는 근원적 질서체계인 도(道)의 은유 도식으로서 길이라는 선형적인 공간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하이데거의 산책적 사유와 의미적 유사점을 갖는다. 인간은 길이라는 사유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맺어나가며 존재의 의미를 생성한다.

노자의 길 개념은 기존 위계관계를 초월한 공간의 위상학적 질서관계를 지칭하며 현존재인 인간은 관조적이며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슬즈가 제시한 위상학적 접근 Topology 특성 즉, 위상학적 공간질서를 통한 장소감 획득과 유사하다.

그릇 은유는 비워짐을 전제로 다양하게 담겨지는 사건에 의하여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됨을 이야기하며 이는 그릇의 빈 공간에 의하여 그 쓸모가 정해짐을 의미한다.

16) 김용정, 동서사상의 만남과 한국, 도서출판 일념, 1982, p.12

17) 주남철, 한국건축의사, 일지사, 1994, p.124

18) 최정화, 노자사상에서 본 현대 미니멀리즘건축의 경향에 관한 고찰, 동아대 석사논문, 2003, p.63

19) 유비(類比, analogy):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물들 사이에 특정한 관점에 서로 합치되는 유사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비워짐을 전제로 형성되는 사이개념은 한자로는 간(間)으로 표기된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인간’, ‘시간’, ‘공간’을 의미하듯이 사이개념은 인간존재의 이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20)</sup> 사이는 행위적 경험을 유발하는 사건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사건개념을 해석하는 유형적 접근 Typology는 인간이 환경과 맺는 관계를 주체인식에 의한 공간적 쉼(21)로 설명하며 이는 전통공간이 심리적 전이성과 시지각적 경험을 통해 체험된다는 점에서 연계성을 갖는다.

대지 은유는 상황의 내재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물과 자연, 인간과 자연, 사물과 인간 사이에 존재를 드러내며 대지와와의 관계를 형상화하려는 형태적 접근 Morphology과 의미가 통한다.

<표 3> 존재론적 사유체계에서 나타난 공간적 속성

존재론적 사유체계			공간적 속성	
하이데거 은유체계	노자 은유체계	공통 개념	술츠의 실존적 공간 해석	분석요소
항아리 Krug	그릇 虛	주체적 행위로서 사건개념	Typology :지각·인지에 의한 체험	심리적 전이성 시지각적 경험
대지 Herd	대지 自然	대지와와의 관계로서 상황개념	Morphology :형상	상황적 가변성 비대칭적 대칭구조
길 Weg	길 道	의미 생성	Topology :사건-상황 작용의 산물	관조성 함축성

## 4. 전통공간에 나타난 존재론적 표현

### 4.1. 주체적 행위로서 사건개념

공간에서 존재적 의미를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존재로서의 인간에게 환경은 자신의 존재방식을 규명하는 하나의 ‘장’이며 인간은 환경이라는 자극을 받으며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존재론적 입장에서 공간은 비워짐을 전제로 다양한 사건-인간의 활동적 요소인 기억, 체험 등-들로 채워지며 이로써 존재의 의미를 구현하게 된다.

#### (1) 허·실의 반복에 의한 심리적 전이성

사물의 존재는 비어있음을 통하여 발현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물의 형상인 실(實)은 상반된 개념인 허(虛) 즉 비어있음에 의하여 드러나며 경계는 어떠한 것을 가로막기 보다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20)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p.388  
 ‘있음’은 ‘사이에 있음’이다. 이는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① 밤: 사이에 있다. ② 때: 머무르다, 경과하다, ③ 문(사물): 작용하다. 되다. ④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 나타나다. 생기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21) 강인보, Christian Norberg-Schulz의 현상학적 건축이론에 근거한 실존적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8, p.54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허·실의 반복에 의해 인간은 주변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관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상반된 개체의 반복적 전개에 의하여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전체를 상호 연관적인 체계로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이성’은 상반된 공간이나 요소 사이에 유발된 움직임, 상호작용, 확산 그리고 변화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간의 상호침투와 연속성을 부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屏山書院)<sup>22)</sup>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산의 자연지세에 순응하여 배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복레문이라 불리우는 진입 공간, 입교당과 동재, 서재로 구성된 강학 공간, 존덕사라 불리우는 제향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밖에 강학 공간 동측 담 너머에는 하인들의 숙소인 주소를 배치되어 있다.

병산서원은 강당영역-사당 영역-서비스 영역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집합체이며<sup>23)</sup> 각 영역을 형성하는 채와 마당으로 형상화된 허와 실의 조합은 중첩된 흐름을 만들며 공간적 질서를 구축한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인 만대루는 비워진 마당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변 환경을 조망하는 현존재로 연속적이고 중첩된 공간을 경험케 하여 이로써 의미를 생성해 내도록 한다.



<그림 4> 병산서원 배치도와 만대루 조망효과

#### (2) 수직적 요소에 의한 시지각적 경험

형과 공의 관계적 구성은 다양한 시선적 움직임을 형성하는데 이는 대문이나, 문턱 등과 같은 수평적 요소와 계단, 기단, 대, 루와 같은 수직적 요소에 의해 시지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기단, 마루의 높낮이, 대(臺), 루(樓), 처마로 이어지는 수직적 레벨의 차이는 시선을 하늘, 즉 채를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 연계하며 회귀적 흐름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전통공간에서 시각적 전망효과는 시방(十

22) 경북 안동시 풍천면 위치. 전신은 고려 말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으로 풍산유씨의 사학이었으나 1572년(선조5년)에 유성룡이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사당의 기능으로 존덕사, 신문, 전시청이 있고 교육기능으로 입교당, 동재, 서재가 있으며 부속건물로 장관각, 만대루, 복레문, 주사 등이 있다.  
 23)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돌베개, 2006, p.20

方)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확장되는 공간이며 이는 큰 것을 향한 회소향대(回小向大)로, 작음에 머물지 않고 무한 경계의 스케일을 육안으로 인식하게 한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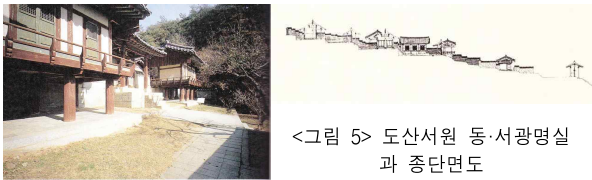
공간에서 자연으로 확장되는 시선의 흐름은 ‘친자연성’을 지향하는 한국의 미적 가치적 입장을 설명하며 이는 건축물의 입지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퇴계 이황의 공간관이 담긴 도산서원은 자신의 서실인 도산서당, 제자들의 기숙소인 농운정사, 제2 기숙소인 역락재의 세 동으로 이루어진 서원으로 퇴계가 구현하고자 하였던 ‘경(敬)’<sup>25)</sup>의 원칙이 지켜진 공간이다.

도산서당 후면에 확장된 서원의 경우 중심축은 강당인 전교당과 진도문이 되며 이를 중심으로 동편에는 도산서당·장판각·상덕사가 배치되고 서쪽에는 정사·고직사가 배치되어 있다.

기존 서당영역을 배려하기 위해 진도문에 이르는 진입영역을 5개의 낮은 단으로 나누어 수직적 레벨감을 더하였으며 진도문 양편에 위치한 동·서광명실은 외부영역으로의 조망감을 더하는 루(樓)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써 계단, 기단, 루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으로 형성된 시각적 경험은 둘러싼 자연경관으로 이어지며 회귀적 존재 의미를 구현해 낸다.



<그림 5> 도산서원 동·서광명실과 증단면도

## 4.2. 대지와 의 관계로서 상황개념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다른 사물들과 관계를 맺어나감에 있어 놓여 있는 상황적 맥락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생성해 나간다. 형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전통공간에 있어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둘러싸고 있는 지형적 형태 또는 지세라 할 수 있다.

### (1) 상황적 가변성

전통공간과 자연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그 배치에서부터 드러나며 이로 인하여 내부와 외부 간의 관계맺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의 행위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대적 관계 즉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며 행위적 산물은 다시 사회문화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흐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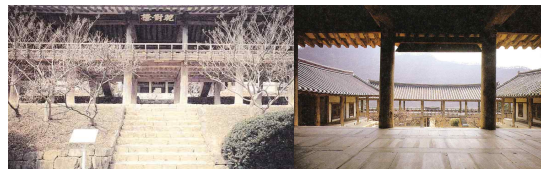
병산서원의 채들의 집합은 지세의 형태에서 연유된 아

24) 김개천, 명목의 건축, 안그라픽스, 2004, p.119

25) 퇴계는 지행합일의 실천적 개념으로 ‘안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서(거경居敬) 아울러 진리를 탐구하는 것(궁리窮理)’를 제안하였다.

래로 내려다보는 시각 때문에 채와 마당이 중첩되고 다시 서원 전면에 펼쳐진 자연경관과 중첩된 장면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외향적 성격을 가진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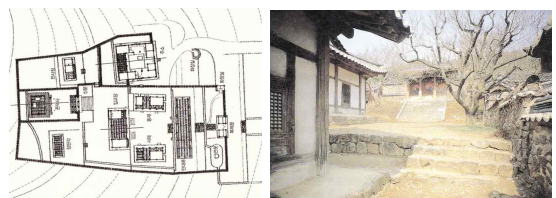
이와 같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채들의 집합형태는 연속적이며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형태는 단절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을 보인다. 이는 주변 대지와 의 상황적 맥락 속에서 가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만대루의 상황적 가변성에 따른 경관차이

### (2) 비대칭적 대칭구조

전통공간을 하나의 집합적 형태로 살펴보면 대칭보다 비대칭적 구조가 대부분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병산서원은 강학공간인 입교당을 중심으로 양편에 동재와 서재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동재의 후면에 자리 잡은 제향 공간 즉 존덕사로의 진입을 위해 동재는 서재와 좌우 대칭적 위치가 아닌 마당 쪽으로 3도가량 틀어진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sup>27)</sup> 틀어짐에 의해 형성된 사이공간은 전사청으로 통하는 문과 지붕이 보이는 경관을 제공하면서 연속적인 동선의 흐름을 유도한다.



<그림 7> 병산서원의 영역별 축선 방향

<그림 8> 동재에서 진사청으로 동선의 연속적 흐름

동재의 비대칭성은 전통공간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자연지세의 순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강학공간과 하인들의 숙소인 주소 사이의 담은 지형의 경사에 맞추어져 축조되었으며 동재는 채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담과 평행하도록 배치되었다. 이러한 비정형적 배치는 평면상 비대칭적으로 보이지만 채와 주변경관과의 관계라는 시각적 차원에서는 정형으로 인지되고 있다.<sup>28)</sup>

비대칭적 대칭구조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개별적

26) 김봉렬, 앞의 책, p.27

27) 하현정, 유인호, 병산서원의 배치형태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호, 2003.1

28) 하현정, 한국 불사의 건축공간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시립대 박사논문 1996, p.139

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개별적 요소와 둘러싼 대지와 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인지하고자 하는 공간조형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적 요소의 형상은 둘러싼 대지 즉 지형적인 특색에 따라 결정지어지며 그 결과 공간 내 인간은 다양한 의미를 생성해 낸다.

### 4.3. 의미생성

Morphology라는 상황적 맥락은 내적 의미를 생성해 내는 사건으로서의 Typology가 요구되며 인간이 공간과 상호연계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Typology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Morphology라는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Morphology와 Typology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 존재적 의미가 생성되는 Topology 즉 장소성이 발현된다.

#### (1) 다경에 의한 관조적 조망

다경(多景)은 전통공간의 경관 조형 특성 중 하나로 한 곳에서 다양한 경치를 조망함을 말한다. 이는 자연경관을 누각이라는 영역으로 수렴하여 관찰자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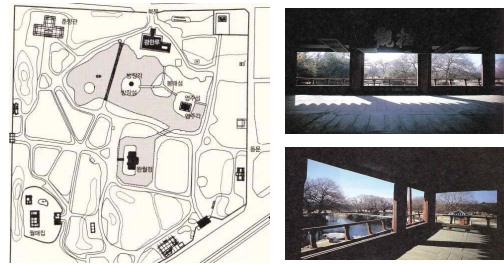
다경에 의한 경관조망효과는 사물로서의 건물과 자연환경을 전체적인 상으로 인지시키면서 관조성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형성한다. 관조성(觀照性)은 사물의 아름다움을 형식이나 구성원리에 의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의미 또는 가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sup>29)</sup>

관조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형식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물의 본질에 대해 사유코자 하며 관찰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 체험 등에 의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의미 생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남원에 위치한 광한루는 도심 내 위치한 유례가 드문 도심형 원림에 해당되며 전신이었던 광통루를 정철 대에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인공 누원(樓園)으로 바뀌었다.

광한루는 <그림 9> 배치도에서 보이듯이 주변 요천에서 끌어들이는 계류가에 놓여있어 누대를 따라 다양한 경관들이 연속적으로 전달된다.

누대의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요소는 난간으로 크게 평난간과 계자난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평난간은 이동을 위한 동선을 위한 것이며 계자난간은 시각적 연속성을 요구하는 정적 공간에 주로 사용된다. 광한루의 난간은 모두 계자난간으로 내부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조망을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그림 9> 광한루 배치도와 다경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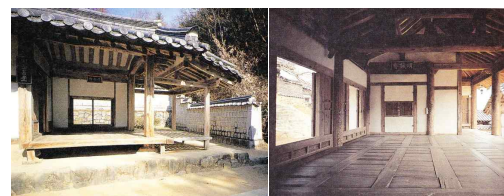
#### (2) 비움을 통한 함축적 공간

노자는 무위(無爲)를 도의 자연 유희적 순환에 따른 운동양식에 대한 실천적 영역으로 제시한다. 무위개념에서는 인간의 행위 역시 존재로서의 본질적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며 이는 전통공간에서 비위(虛)의 개념으로 표출된다. 비워진 공간들은 각 체에서 충족되지 못한 역할을 보완해 주면서 행위공간으로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적인 성격의 여백공간으로 성격이 규정된다.<sup>30)</sup>

이와 같이 상대적 가치에 의해 변화하는 허 개념은 개인의 기억에 의해 형성된 공간적 도식에 따라 함축적 성격을 가지며 장소성을 구현해 낸다.

전통공간에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은 마당과 대청마루로 이는 외부공간에 대하여 차단된 내부공간이 아니라 자연에 종속적으로 연속되고 개방되어 더불어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기능한다.<sup>31)</sup>

따라서 마당과 대청마루는 내부와 외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간 영역적 속성을 지닌다.



<그림 10> 도산서당과 병산서원 대청마루

## 5. 결론

불완전한 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간이 가진 본질적 의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공간론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전통공간에 나타난 존재론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30) 윤영선, 노자사상의 유기적 원리를 통한 건축공간구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2호, 1997.10

31) 이배화, 한국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구성의 유형학적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2호, 1998.2

29)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형, 도서출판 국제, 2006, p.196



첫째, 현대 공간론에서 주된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학적 장소개념에 있어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공간론은 철학과 예술 그리고 인접학문 사이의 융합 학문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으며 동서양 간의 상호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하이데거와 노자의 사상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도-존재, 도상을 사용한 유비적 사유체계(그릇, 길, 대지 은유), 사물-인간-자연과의 상황적 맥락성에 따른 관계조명 등 본질로서의 존재 의미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유사점을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근거한 슬츠의 실존적 공간 개념을 매개로 전통공간에 나타난 노자사상의 존재론적 공간개념을 주체적 행위로서 사건개념, 대지와 관계로서 상황개념, 의미생성개념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특히 장소성을 구현하는 의미생성은 사건과 상황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규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례에 나타난 주체적 행위로서 사건개념은 허·실의 반복에 의한 심리적 전이성과 기단, 마루의 높낮이, 대(臺), 루(樓), 처마로 이어지는 수직적 요소에 의한 시지각적 경험이라는 인간의 활동적 요소로서 드러난다.

현존재로서의 인간이 주체로서 다른 존재자 즉 건축물과 환경으로서의 대지를 인식함을 통하여 그 존재를 드러냄을 의미한다.

대지와 관계로서 상황개념은 사물로서의 채와 대지와 관계에 의해 드러나는 특성으로 상황적 가변성과 비대칭적 대칭구조로 나타났다. 의미생성은 세계-내-존재로서 구현되는 장소적 의미를 말하며 다경에 의한 관조적 조망, 비움을 통한 함축적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정체성이 구현된 공간을 규명함에 있어 본질을 밝히고자 하는 존재론적 공간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러싼 대지와 상황적 맥락성에 따른 형상을 구축하고 현존재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함을 통하여 사물로서의 공간, 현존재로서의 인간, 환경으로서의 자연은 서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의미적 유사점을 갖는다.

이는 한국 공간디자인에 있어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적인 제시를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1. 권영길, 한·중·일의 공간조영, 도서출판 국제, 2006
2. 김개천, 명목의 건축, 안그래픽스, 2004
3.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돌베개, 2006
4. 김용정, 동서사상의 만남과 한국, 도서출판 일념, 1982
5. 김형효, 도가 사상의 현대적 독법, 도가철학 제2집
6. 남만성, 노자 도덕경, 을유문화사, 서울, 1970

7.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2003
8. 이수정, 하이데거-그의 물음들을 묻다, 생각의 나무, 2010
9. 주남철, 한국건축의자, 일지사, 1994
10. 한국하이데거학회, 하이데거철학과 동양사상, 철학과 현실사, 2001
11. C. N. Schulz, Meaning and Place, Rizzoli, New York, 1993
12. C. N. Schulz, Concept of Dwelling, Rizzoli, New York, 1994
13. M. Heidegger, Die Grundprobleme der Phänomenologie (SS.1927)
14. C. N. Schulz, 건축론, 정영수 역, 세진사, 1987
15. C. N. Schul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2002
16. Edward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2인 역, 논형, 2005
17. 강인보, Christian Norberg-Schulz의 현상학적 건축이론에 근거한 실존적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8
18. 윤영선, 노자사상의 유기적 원리를 통한 건축공간구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2호, 1997.10
19. 이배화, 한국 전통건축에 나타난 공간구성의 유형학적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2호, 1998.2
20. 이정민, 현대의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관된 공공디자인의 신경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3호, 통권92호, 2012.6
21. 최정화, 노자사상에서 본 현대 미니멀리즘건축의 경향에 관한 고찰, 동아대 석사논문, 2003
22. 하헌정·유인호, 병산서원의 배치형태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호, 2003.1
23. 하헌정, 한국 불사의 건축공간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1996

[논문접수 : 2014. 05. 29]

[1차 심사 : 2014. 06. 27]

[게재확정 : 2014. 07. 11]